

# 군무원·기업 근로자 정주 환경 개선

### 임실군-전북개발공사, 임실읍 120세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협약 체결

임실군에 국방의 의무와 지역사회 봉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육군 제35사단과 6탄약창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과 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아파트'가 들어선다.

임실군과 전북개발공사는 임실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실을 이도리 일원에 1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임실군 지역발전을 위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임실군에는 현재 35사단과 6탄약창

등 군부대가 주둔해 있다. 그러나 군무원 등 군부대 근로자들의 주택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이 부족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관내 근로 인구의 주택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현행법상 군무원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없고, 열악한 보수로 외지에서 출퇴근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이에 임실군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해내고,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군부대 군무원들이 부담 없이 거주하고,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기획, 추진에 최종 협의하게 됐다.

군은 이번 협약 체결로 임실을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군무원 등 군부대 근로자 및 임실을 내 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직주근접'을 실현,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는 2023년도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관촌면(120세대)과 오수면(80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전북개발공사는 지자체의 주거인프라 문제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문제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임실군과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임실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작년에 이어 이번 임실군과 전북개발공사의 협약을 계기로 오수와 관촌 지역뿐만 아니라 임실읍 지역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군무원 등 군부대 근로자 및 읍내 기업 근로자 등 젊은 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과 전북개발공사는 임실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순창군,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안보결의대회

### 기관·단체장 100여명 참석

6·25전쟁유공자회 순창군지회(지회장 김갑용)는 지난 25일 순창읍 장미가든에서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6·25전쟁 제74주년을 기념해 참전유공자들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기념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6·25전쟁유공자들을 비롯해 보훈단체장과 유가족, 신장이 순창군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6·25전쟁유공자 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결의문을 낭독하는 '안보결의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념사에서 "현



6·25전쟁유공자회 순창군지회는 지난 25일 순창읍 장미가든에서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재 생존해 계시는 6·25전쟁용사가 100세가 넘는 등 연로한 상황으로 더 이상 보은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우리 군은 살아계실 때 예우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보은이라는 것을 명심해 보훈수당 인상 지급과 보훈회관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 잇따라

### 윤지홍·강인식·김길수·이숙자 의원 등 4명

남원시의회 윤지홍, 강인식, 김길수, 이숙자 4인 의원은 26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윤지홍 의원은 지리산 비래봉 철쭉 군락을 보존하고 비래봉 일대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철쭉 군락 훼손지 복원 유관기관 합동 TF팀 창설과 증장기 계획 10년 복원 사업으로 비래봉 철쭉군락지 복원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강인식 의원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구조 개선 작업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 5일장 노점상 구역조정은 지금 당장 필요하며, 관광객 방문 시 구도심 및 공설시장 유입을 위한 접근성 확대 방안과 남원 농축산물 중심의 메뉴 개발, 핵심포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길수 의원은 교통산 정상에서 신

년 해맞이 행사를 하고,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도록 데크와 쉼터가 있는 누각(교통정)과 조명 설치를 제안하며, 비록 교통산이 도지정 국가유산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더라도 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광 자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의원은 스포츠산업화 도시 남원을 실현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활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과 안정감 유지를 돕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환경 기반을 구축, 남원을 찾는 선수단과 가족들에게 공공시설 임차료 할인 및 부대시설 이용 등의 혜택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되는 전환점이 되도록 정책 전환 검토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자활상품 시군 순회장터 '호응'

남원시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광역자활센터 주관으로 시청 로비에서 열린 자활상품 시군 순회 장터가 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았다고 밝혔다.

자활상품 순회장터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착한소비를 촉진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된 각종 제품을 홍보·전시·판매하는 행사이다.

이번 순회 장터에서는 남원 이외 전주, 군산, 김제, 진안, 부안에서 참여하고 베이글, 커피, 음료, 김밥, 떡볶이 밀키트, 핸드메이드 천연제품(비누), 수제누룽지 등 다양한 제품이 저렴한



가격에 선보였다.

임춘근 남원지역자활센터장은 "앞으로도 자활상품 판매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과 자활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내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작

순창군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순창군민의 참여를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7월 12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주민참여예산 공모대상 사업은 군 전반에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또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평소 주민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순창군이 선진

적으로 도입하면 좋은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순창군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7월 12일까지 공모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먼저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 수혜도 등을 사업 관계 부서에서 검토한 후 9월~10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며, 이후 순창군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

남원시는 지난 25일 스위트호텔 남원 1층 대연회장에서 치매에 관한 지식과 돌봄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송은주 교수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치매환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치매 이해, 소통기법 및 종사자 마음챙김'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들은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노하우 등의 습득으로 치매환자 돌봄관리 역량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최민자 치매안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돌봄 수준 향상으로 치매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존엄성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고품격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낙농가 저지종 젖소 수정란 보급

임실군이 지난 25일 저지종 보급사업으로 관내 낙농가에 저지종 젖소 동결수정란 보급을 시작했다. 이번 수정란 보급은 지난해 12월 국립축산과학원과 임실군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관내 저지종 사육 확대와 저지종 원유를 이용한 고품질 치즈 등 유제품을 생산하여 임실치즈 브랜드 강화를 위한 목적을 갖고 수행된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이번에 올해 보급 예정인 동결수정란 총 30개 중 상반기 보급분인 15개를 전달했으며, 하반기 보급분 수정란 15개와 생축 1마리는 10월 중 전달한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급된 동결수정란은 사선가축인공수정소로 위탁 공급하고, 미리 선별된 낙농가 두 곳에 수정란 이식을 실행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